



#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행일 2018년 3월 15일 | 총권 45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하2로 267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 그림책... 사람과 사람을 잇다!

그림책은 혼자 읽기보다는 함께 읽을 때, 또 누군가가 읽어주었을 때 그 의미가 배가 되는 독특함이 있다. 그림책을 좋아하는 인연을 고리로 마을 지인들과 시작한 그림책 모임. 그림책은 신선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 아이 어릴 적 읽어주었던 그림책을 다시 만나면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났고 그때는 놓치고 지나갔던 것들이 새롭게 발견되면 그냥 좋았다. 무언지 모를 불편함을 주는 그림책은 이유를 찾아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또 배움이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그림책을 통한 소통이 좋았다. 따스한 손길로 토닥토닥 위로하고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경험을 공유하고픈 간절함과 그림책을 온전히 독립예술 장르로 바라보고, 그림책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픈 마음이 우리의 그림책모임을 교육문화협동조합 “빵과그림책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우리는 지역사회 안에서 그림책을 매개로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노력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을 찾아가 그림책을 읽고 나누는 이 활동의 이름은 ‘찾아가는 그림책 약방’이다. 다양한 계층과 만나 함께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림책이 가진 소통과 치유의 힘, 그리고 그림책이야말로 0세부터 100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책이라는 걸 실감한다.

경로당을 찾아가셨을 때 “아기가 보는 거 들고 왔네” 하고 한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다. 그림책에 대한 선입견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느꼈다.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부분을 어찌 전달하면 좋을까. 어른들께 어떤 그림책으로 큐레이팅하면 좋을까. 첫 만남은 옛이야기 그림책.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추임새가 저절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림책 이야기 속으로 몰입하시는 어르신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내용의 그림책도 보고 싶다는 자발적 의견도 주시고, 경로당 밖까지 나와 눈인사로 배웅하시는 어르신들, 그림책을 통한 은근하지만 따뜻한 정이 오가는 자리가 되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난 초등 고학년 친구들은 책보다는 핸드폰이 더 좋은 아이들이었다. 그림책에 대한 관

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뜨개질을 제안했다. 더불어 뜨개질 관련 그림책을 읽어주니 새조롭게 앉아있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림책을 주제로 한 낭독공연’ 등 문화예술공연도 하고 있다. 강서마을박람회 그림책 퍼포먼스 <청어 열 마리>는 웃음으로, 세월호 3주기 강서 추모문화제에서 청소년조합원이 낭독한 <세월호 이야기>는 눈물로,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시상식 축하공연에서 생산자조합원이 낭독한 <흰 눈> <밥. 춤>은 감동으로 마무리되었다.

지역공헌활동으로 ‘그림책 버스킹’도 했다. 마을 안에 있는 공원, “매주 목요일 여기서 만나요~” 현수막 앞에 그림책을 펼쳐 놓았다.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마실 나 왔던 아이, 혼자 자전거 타던 아이, 친구들과 공놀이 하던 아이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생소하고 낯설었던 그림책 버스킹은 시간이 쌓이면서 돈독한 정이 오가는 공간이 되었다. 그림책 버스킹은 야외활동이라 겨울 동안에는 쉬고 날씨가 풀리면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지역연대활동으로 세월호 리본 코바늘뜨기, 강서양천 김장나눔 등도 참여했다.

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 그림책을 나누고 싶은 사람, 그림책이 궁금한 사람은 누구든 환영하는 ‘빵과그림책 열린그림책 모임’도 시작했다. 직장인을 배려한 저녁 모임, 저녁 시간이 힘든 엄마들을 위한 오전 모임. 그림책을 보고 읽으면서 그 너머의 것을 찾아보기도 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로 채워가고 있다. 오롯이 그림책 모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에 빠지는 시간이다. 아이들 키우며 그림책을 만나고 그림책의 매력에 빠졌던 엄마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활짝 문을 열었다.

빵처럼, 장미처럼 향기로운 그림책!!!

마음과 마음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을과 마을을 잇다!

그림책 큐레이터가 세상을 향해 그림책으로 내미는 손이 좀 더 분주해지길...

변영이 | 학도넷 간사, 빵과그림책협동조합 이사

## 차례

###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 02\_ 이런 수업 어때요(1)

### 03\_ 이런 수업 어때요(2)

### 04\_ 추천도서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책모임에서 권하는 책

###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손도영 / 한재훈 / 박정훈 / 전태옥

###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고, [www.hakdo.net](http://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mailto:hakdonet@hanmail.net)

## ‘주제별 깊게 읽기’(책 속 탐험하기)

– 박영옥(전 연지초사서, 학도넷 운영위원)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은 책을 읽고, 책을 빌리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사서 역시 이에 맞는 활동으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이 여기에 그쳐야 할까? 학교도서관에 발을 들여놓고, 업무 파악하고, 그동안 읽은 적이 없는 어린이 책을 읽고, 어느 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 ‘학교도서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왔다. 책을 대출하고, 책읽기 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진행하고, 분류체계를 알리고, 책과 도서관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으로 끝인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학교도서관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고민해왔다. 내가 얻은 결론은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업을 책으로 지원하는 곳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할까? 교사-사서-학생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해야 목적달성이 가능하겠지만 교사와의 연계하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높다. 주제별 깊게 읽기는 이 같은 생각에서 파생한 프로그램이다. ‘주제별 깊게 읽기(책 속 탐험하기)’란 낯선 말을 만들어 내고 어떻게 진행할지를 고심했다.

학교도서관의 수많은 책 중에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은 책도 많다. 특히 학습과 관련된 책은 수서해 놓아도 학생들은 잘 보지 않는다. 학과와 관련된 책은 교과서로 배운 내용을 확장시켜 지식체계의 스펙트럼을 넓힌다. 하지만 학생들이 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했나. 학교도서관 사서로서 아이들이 이런 책으로 접근시키는데 노력을 해 보았다. 책만 수서해 놨다고 해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나, 그렇다면 이 책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접근시켜야 할까?

처음해보는 프로그램이라서 계획서를 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런 방법으로 진행할까? 그럼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사서가 접근시키고자 하는 책을 아이들이 모르는데 아이들에게 방법만 가르치고, ‘이제 너희들이 해봐.’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주제는 한 반 내에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쉽게 조별로 할까 하다가 자기 과제를 스스로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어렵더라도 혼자 하도록 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아이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사서의 지원(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욕심을 더하여 한 학년만 하려던 원래의 계획을 바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확대했다. 학생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작을 했다. 그리고 보았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다음 수업을 위해 빨리 정리를 해야 하는데, “조금만요, 조금

만 더 하고요.” 하고 책을 놓지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를 끝내고 ‘하나 더 해도 돼요?’ 하고 물어오는 아이들을...

### 1차시 주제별 깊게 읽기 방법 및 목적

주제별 깊게 읽기 시행 방법은 학생들이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4권 이상의 책을 도서관에서 찾아 그 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때 아이들은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의 책을 찾는다. 그리고 찾은 도서를 바탕으로 탐구 항목을 조사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즉 책을 어떻게 찾는지, 그 책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과정보다 결과물을 잘 만들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에 집착한다. 사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함을 매 시간 학생들에 주시시켜야 한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료에서 자기의 주제를 찾으면서 지식을 확장시켜나가는 것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때 심진분류번호 체계를 알고 우리 도서관의 서가 배열을 익히도록 하는 것도 목적 중의 하나이다. 시행방법은 먼저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참고 도서를 4권 이상 찾는다. 이때 주제는 어떤 것이나 가능하며 중간에 바뀌어도 된다. 그리고 책에서 탐구 항목을 스스로 찾아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때 책은 도서관에 있는 책으로 한정한다. 이유는 이 프로그램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시피 분류번호체계 알기와 서가 배열을 익히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4차시로 진행되는데 1차시에는 ‘주제별 깊게 읽기’ 목적과 심진분류번호 체계, 우리 도서관의 서가 배열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2차시에는 주제를 정하고, 관련도서를 찾고, 조사항목을 찾는다. 이때 관련 도서는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찾도록 한다.

### 2차시 주제 정하기와 관련도서 찾기, 탐구항목 찾기

주제 정하기와 관련도서 찾기는 컴퓨터의 자료검색을 통해 주제를 입력하여 도서를 찾거나, 서가에서 책을 살펴본 후 주제를 정할 수 있다. 자료검색대가 부족하므로 서가에 직접 가서 찾는 방법과 자료검색대 검색을 병행한다.

첫 번째, 서가에서 주제에 맞는 책 찾기는 서가에서 책을 살펴본 후 주제를 정하면 주제와 책을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있고, 책의 수준이 나에게 맞는지 알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된다. 하지만 다양한 책을 못 찾는 경우도 있어 검색기를 활용해 부족한 책을 첨부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의 하나인 자기 학교도서관의 책의 위치가 어떻게 배치되어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 방법을 권장한다. 주제를 미리 정하지 못할 때는 이 방법이 더욱 좋다.

두 번째, 컴퓨터 검색으로 주제 찾기는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를 이미 정한 경우 검색대를 활용하면 된다. 검색한 도서는 반드시 서가에서 찾아 자기 주제에 맞는 책인지, 수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똑같은 주제의 책이라도 학년에 맞게 수준차를 두기 때문에 꼭 책을 살펴봐야 한다. 컴퓨터 검색은 사서의 세밀한 도서 목록 입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서가 도서목록을 입력할 때 주제어, 목차를 세밀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검색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책은 같은 주제의 책이라도 출판사나 지은이가 다르다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찾아둔다.

주제나 탐구 항목을 찾기 위해서는 앞표지, 뒤표지, 목차, 색인, 서문, 작가의 글, 추천사, 일러두기, 책날개 등의 정보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앞표지에 있는 책 서명 중 관계(관용사 어구 형태로 도서명을 보조하는 역할), 편제(시리즈), 부제(부서명으로 서명을 대신해서 사용 가능) 등을 살핀다.

뒤표지에는 대개 출판사에서 해당 책을 간단히 소개하거나 추천사가 있다.

목차를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목차에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된다. 이때 소목차까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색인은 좀 더 상세한 내용과 쪽수를 알려주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문(머리말)에는 저자의 해당 책에 대한 의도, 강조 등 표지에서 빠진 내용을 수록했다.

추천사는 과학, 예술, 문화, 역사 등 전문분야의 책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의 추천사가 실리기도 한다.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의 특징, 의도, 등을 알 수 있다.

일러두기는 사진류, 도감류 등에는 <일러두기>가 있다. 일러두기에는 본문에 쓰인 기호 풀이, 책의 구성 등 그 책만의 특징을 넣어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책날개 중 앞날개에는 주로 지은이 소개가 있지만, 뒷날개에는 해당 출판사의 책을 소개하기도 한다. 따라서 뒷날개에서 참고 도서를 찾을 수가 있다.

학생들은 주제와 찾은 책과 탐구 항목을 <표1-예시>처럼 작성한다.



〈표-예시〉 1차 - 주제 및 해당도서, 조사항목 작성

이름(학년반)		홍길동(6학년 1반)		
주 제		세계의 음식		
순	책 제목	지은이	출판사	분류번호
1	요리조리 맛있는 세계여행	최향랑	창비	594.5/최969
2	지도 없이 떠나는 101일간의 음식의 세계사	박영수	영교출판	381/박492
3	꼬들꼬들 마법의 세계 음식 책	이향안	조선북스	381.75/이778
탐구 항목 1. 나라별 대표 음식과 재료 알아보기(5곳) 2.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 알아보기 3. 나라별 독특한 양념 알아보기				

〈표-예시〉 2차 - 주제 및 해당도서 작성 (사서가 도서 및 탐구 항목 추가)

이름(학년반)		홍길동(6학년 1반)		
주 제		세계의 음식		
순	책 제목	지은이	출판사	분류번호
1	요리조리 맛있는 세계여행	최향랑	창비	594.5/최969
2	지도 없이 떠나는 101일간의 음식의 세계사	박영수	영교출판	381/박492
3	꼬들꼬들 마법의 세계 음식 책	이향안	조선북스	381.75/이778
4	샌드위치 백작과 약어스테이크	강경효	아이세움	909/이778
5	(영양만점) 어린이 음식백과	소냐 플로토-슈탐멘	한겨레아이들	594.1/플886
탐구 항목 1. 나라별 대표 음식과 재료 알아보기(5곳) 2.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 알아보기 3. 나라별 독특한 양념 알아보기 4. 날씨, 지역과 음식과의 관계 알아보기 5. 음식의 유래 알아보기(피자, 초콜릿, 자장면, 햄버거 등) 6. 기타				

※ 4.5. 책과 4.5. 탐구 항목은 사서가 추가한 도서와 조사항목이다.

### 2차시 후 사서가 준비할 일

학생들이 <표1>을 제출하면 책이 주제에 맞는지, 수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책을 추가하여 4권 이상을 채우고 탐구 항목도 추가하여 <표2>를 작성하여 다음 차시를 준비한다. 개인별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탐구보고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빠르다.

이 시간은 사서의 지난한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동안 우리 도서관의 책을 웬만큼 꿰고 있다는 자만이 여지 없이 깨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먼저 학생들의 주제를 보고 더 추가할 책을 찾는다. 학생들은 자기가 알고자 하는 내용의 분류번호 위치에서만 책을 찾는다. 전집이나 더 큰 제목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찾아내지 못한다. 사서는 주제에 맞는 책을 찾아 도서관의 컴퓨터와 서가를 뒤진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별 수준이 맞지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찾은 책의 표지, 목차등을 살펴 탐구 항목을 추가한다. 이 일은 학생들 개인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3·4차시 탐구보고서 작성

학생들은 사서가 작성해준 <표2>를 보고 본인이 찾은 책과 사서가 추가한 책을 서가에서 찾아 탐구 항목을 조사하여 작성한다. 학생들의 조사 활동은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자료를 찾다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탐구 항목은 조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사서가 지정해 줬다고 해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음을 알린다. 추가 내용은 '기타'란에 항목을 쓰고 추가 작성한다. 그림이나 도표를 그려도 된다.

### 주제별 깊게 읽기의 효과

- 학생들의 자료 찾기 능력 향상

학생들이 교과와 관련된 과제나 평소에 궁금한 내용을 책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은 학교도서관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주제별 깊게 읽기'는 사서가 자료를 찾아가는 과정을 알려주면 학생들은 스스로 찾아가며 자료 찾기 방법을 익힌

다. 자료 찾기 과정은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할 때 인터넷이 아닌 도서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따라서 주제에 맞는 자료를 찾는 과정을 꼼꼼하게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서가 추가한 책을 보면서 자료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탐구 항목을 찾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조사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지식이 확장되는 것을 느낀다. 자료를 찾아 자기가 알고자 하는 이런 활동은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학생들은 2, 3개의 주제를 추가로 조사하기도 했다.

- 도서관에 대한 인식 개선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동화책이나 흥미위주의 책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교 도서관의 다양한 책에 접근할 수 있다. 또 도서관이 단순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곳으로, 또는 각자의 지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곳으로, 도서관의 기능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 사서의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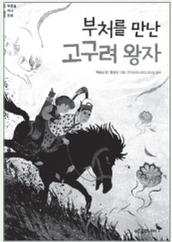
사서는 학생들이 찾은 도서나 탐구 내용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책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아진다. 책을 추가하기 위해 컴퓨터와 서가 사이를 분주하게 다녀야 한다. 그리고 책 한 권 한 권 제목과 부제목과 목차와 색인을 살펴보고 탐구 항목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대충알았던 책에 대한 정보가 사서 머리 속에 쌓이게 된다. 이렇게 쌓인 책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학생과 교사가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 원활한 학습활동을 도울 수 있다.

- 수서에 도움

학생들의 주제에 맞는 도서가 도서관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그 주제에 맞는 도서를 다음 수서 때 구입함으로써 도서관에 다양한 도서를 갖추는데 도움을 준다. 도서관의 장서는 그 도서관의 질을 좌우한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많은 도서를 구비할 수 없다. 하지만 교과와 연관이 깊은 도서의 경우 최우선으로 구비한다.

#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책모임에서 권하는 책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2002년에 금천동화읽는어른모임 '함박웃음' 회원들과 뜻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만든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지만 마을 안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좋은 책을 많이 두려고 애를 쓰고 무엇보다 그 좋은 책들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회원들은 어린이책을 비롯한 다양한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작은도서관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 부처를 만난 고구려 왕자

백승남 지음 / 푸른숲주니어 / 2015년 11월

고구려의 고국양왕의 어린 시절 이름은 이련입니다. 이련과 궁궐 밖에서 만난 친구 마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련은 불교가 들어오면서 잊혀졌던 기존의 종교이자 의지였던 사무를 찾아갑니다. 여행과정을 통해 이련은 불교의 가르침과 사무의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 숭배하던 자연속의 신들도 만나게 됩니다. 작가의 상상력으로 태어난 이야기지만 탄탄한 역사공부를 통해 재현한 이야기속에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말고도 그 시절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교과서 속에서만 알았던 불교의 도입 이야기와 갈등도 펼쳐져서 자연스럽게 역사공부도 되는 책입니다. 작가가 예전에 '동화읽는어른'이었다는 것도 살짝 밝혀둘게요.



## 뽕덕

배유안 지음 / 창비 / 2014년 6월

이런 종류의 글을 '이야기 다시쓰기'라고 하는거겠지요? 이미 잘 알려진 <심정전>의 인물들이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잘 알고 있는 뽕덕어미, 그러나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는 뽕덕이 나오진 않지요. 작가는 숨어있는 뽕덕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의 갈등, 성장하면서 겪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모를 부정하는 일처럼 상처가 되는 것은 없음을, 부족한 부모를 안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성숙한 자신의 삶을 찾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을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의 뽕덕(병덕)이는 참 멋진 친구랍니다.



## 가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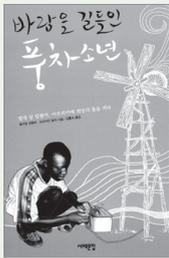
김혜원, 김혜연, 임어진, 임태의 지음 / 바람의 아이들 / 2010년 10월

네 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인물들은 같은데 집중되는 이들이 달라지는 형식입니다. 휴대폰 광고를 찍는 과정에서 모인 네 사람, 그들은 광고에서는 필요한 역할들을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엄마의 등쌀에 억지로 연기 공부하는 예린이, 휴대폰 때문에 집을 나온 재형이, 엄마를 그저 엄마로만 생각하고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본 적 없는 안탕장, 그리고 아내와 딸에게 소외감을 느끼며 외로워하는 박동화아저씨... 네 사람은 휴대폰 광고를 찍으면서 자신의 문제들을 직시하기도 일부 해결하기도 새로운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색다른 형식의 소설,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윌리엄 캄캄바, 브라이언 밀러 지음 / 서해문집 / 2009년 11월

말라위에 살고 있는 윌리엄은 호기심 많은 아이였지만



말라위의 정치상황과 집안의 가난으로 공부를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굶주리는 일도 다반사였지요. 원하는 것을 말하면 뒤로 끌려가 매를 맞을 정도로 정치적인 상황도 좋지 못해 옥수수값은 오르고 윌리엄의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갑니다. 윌리엄은 어느 날, 사진을 보러 다가 에너지 관련한 미국의 교과서를 보게 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풍차를 만들 계획을 합니다. 먹지도 못하는 환경에서 풍차를 만들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지요? 이 책은 상상력으로 만들어 낸 책이 아니라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주인공 윌리엄은 정말로 혼자만의 힘으로 마을에 풍차를 만들고 전기를 끌어옵니다. 윌리엄은 중학교도 마치지 못했지만 이 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유학을 가 지금은 어엿한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 미안마, 마옹저아저씨의 편지

진형민 글 / 김태은 그림 / 사계절 / 2017년 11월

스물 다섯 살이던 미안마 사람 마옹저씨는 우리나라에서 20년을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안마의 정치상황이 좋지 않아 민주화운동을 하던 마옹저씨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지요. 마옹저씨는 한국에서 미안마 어린이들을 위한 일들을 시작했고 그 결실로 변변한 어린이 책도 없던 미안마에 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 일을 완성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마옹저씨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입니다.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에서는 마옹저씨와 함께 미안마에 어린이도서관을 짓는데 보탬이 되고자 바자회도 하고, 옛이야기에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그려 작은 그림책을 만들어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미안마의 그 도서관에 더 많은 어린이책이 꽃히고, 좋은 어린이책이 계속적으로 출판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몽환화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민경욱 옮김 / 비채 / 2014년 5월

책을 참 많이 낸 유명한 작가라 오히려 뭐 흠잡을 데는 없는가 신경쓰며 읽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표지부터가 분홍색으로 뭔가 분위기가 그야말로 몽환적입니다. 작가의 말에 의하면 10년이 걸려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치밀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도 좋았지만 이 책은 여러 이야기들이 줄줄이 적당히 간격을 가지고 적절히 토대를 가지고 이어져 있습니다. 사건을 추리하는 것 못지않게 각 인물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게 더 흥미있는 책입니다. 이야기의 씨실과 날실을 맞추며

읽다보면 그의 명성이 짐작이 가는 구석이 있습니다. 정말 노력해서 글을 쓰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환화... 꽃에 관한 추리기법의 소설입니다. 제목만으로도 벌써 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고, 끈기있게 읽고나면 감탄이 나옵니다. 물론 머리는 좀 복잡해집니다만 하하.



## 영초언니

서명숙 지음 / 문학동네 / 2017년 5월

제주에 올레길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것이 도무지 뭘지 알 수도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다들 극찬하고 한참 지나서야 가 본 올레길은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잡생각을 없애주었고 무엇보다 걷는 이들과 함께여서 좋았습니다. 이런 길들을 만든 이가 이 책의 작가인 서명숙씨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서명숙씨는 그때 전후로 만났던 영초언니의 삶과 생각과 행동을 기록하고 국가권력과 대응하던 여자들의 이야기를 글로 써냈습니다. 70년대 학번들의 이야기이지만 전두환 정권하에서 친구들 끌려가는 모습을 다반사로 보고, 구두 한 번 신지 않았던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되어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꿈에서는 전쟁들의 군함발 소리가 울리는 현장에 있고 담을 뛰어넘어 도망치는 두려운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영초언니의 결말이 슬프기는 합니다만 그의 삶과 현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이루도록 만들어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 사는 게 뭐라고

사노 요코 지음 / 이지수 옮김 / 마음산책 / 2015년 7월

<100만번 산 고양이>라는 그림책으로 유명한 사노 요코의 수필집입니다. 이 책에 반해서 아니 사노 요코한테 반해서 그의 책을 줄줄이 사 읽었습니다. <죽는 게 뭐라고> <자식이 뭐라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까지. 그러나 역시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 책입니다. 암 투병을 하던 사노 요코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의 재미는 그의 유머감각에 있습니다. 한 문장에 웃음과 슬픔이 다 들어있다면 과장일까요? 배용준과 이병헌에 훌쩍 빠지고 나서 턱이 돌아가는 병까지 얻었지만 다시 냉철하게 자신을 비롯한 일본인들의 한류열풍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는 멋진 여성입니다. 자신과 화합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는 사노 요코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자신의 생각을 만들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빠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 쌀밥이라고는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죽어버린 동생, 그리고 현재 어엿한(작가의 표현임) 치매환자인 어머니... 죽지 않았다면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은 작가 사노 요코... 그의 명복을 빕니다.

# 내가 권하는 책



## 절기서당- 몸과 우주의 리듬 24절기 이야기

김동철, 송혜경 지음  
북드라마 / 2013년 10월

**절**기라~ 참 낮은 단어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절기라는 말보다는 '화이트데이'나 '빼빼로데이'가 더 친숙해졌다. 절기는 그저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달력을 자세히 보면 절기들이 나와 있다. 절기력은 태양이 움직이는 24걸음이란단다. 태양이 첫발을 내딛으면 땅 속 깊이 봄이 시작되고(입춘), 두 번째 스텝을 밟으면 얼음이 녹는다(우수).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걸음마다 자연의 변화들이 발생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태양은 15일마다 변화를 만들며 돌아간다.

절기력은 농부의 달력이라고도 한다. 농부들에게 절기력은 언제 씨를 뿌려야할지, 언제 추수해야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도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에서 사는 우리에게 이런 절기와 자연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기란 쉽지 않다. 조금만 민감하게 바람을 느껴보면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책은 입춘부터 대한까지 농부들이 절기들을 준비하고 만나면서 어떻게 관계 맺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이를테면 '입춘'은 봄에 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봄을 세운다는 의미임을 알게 해준다. 봄을 세운다는 건 뭘까? 봄이 완성된 채로 나에게 와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봄을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것이다. 이 시기 나의 몸의 변화는? 그렇다면 이 시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할까? 끊임없이 질문하게 해준다. 일 년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나의 일상을 이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마치 옛이야기 속 주인공이 길을 떠날 때 위기에 쓰러고 준비한 빨간주머니, 파란주머니와 같다. 우리에게 절기라고 하는 지혜의 주머니가 있다. 그 시기별로 꺼내보면 된다.

지금은 춘분이다. 춘분은 농번기의 시작이자 한편으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절이다. 꽃샘추위는 음기의 끝자락이다. 음기를 잘 전승하고 새로 맞이할 양기를 위해 주변단장을 해야 한다. 묵힌 것을 떠나보내야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있다. 꽃샘추위를 잘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소라고 한다. 매일매일 내려앉은 먼지처럼 우리 마음과 일상에는 끊임없이 묵은 때가 낀다. 몸과 마음의 묵은 때를 싹 치워버리면 내 일상에도 활력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춘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이다.

렝똥 교실에서도 24절기의 리듬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누며 농부들의 지혜를 익힌다면 아이들의 삶도 훨씬 풍성해지리라 생각된다.

- 김은영(독서클럽 북원스)



## 어느 조용한 일요일

이선미 지음 / 글로연  
2017년 6월

**가**우똥 기울어진 채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지붕 위 페인트 통. 무슨 일이 생길까 상상하던 찰나, 속표지를 넘기자마자 페인트 통이 떨어지며 짙한 핑크색 페인트가 바닥으로 쏟아진다. 아이와 공놀이를 하던 강아지가 먼저 침병, 아이가 그 뒤를 잇는다. 시원하게 옷을 버린 아이가 잠시 사라진 사이, 지나가던 새들이 찾아와 발자국을 남기고 새들을 향해 고양이와 돌진한다. 핑크 무늬는 아이와 아이를 둘러싼 세계를 넘어, 아빠 차에도 집 안에도 난입한다. 무채색으로 그려진 조용한 집 마당이 다양한 핑크색 무늬로 채워지는 일요일. '어느 조용한 일요일'의 단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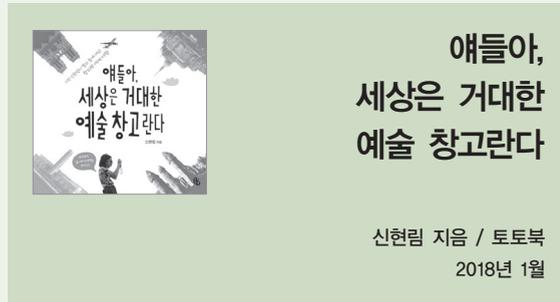
그리고 보면 물웅덩이를 보면 뛰어들고 싶고 맨발로 흙을 밟아보고도 싶어지고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고 싶다는 마음이 누구에게든 없을까. 《어느 조용한 일요일》은 표지부터가 이런 우리 마음을 감각스레 흔든다. 이 책에 나오는 아빠 차 지붕에 페인트 묻은 공이 '톡'하고 자국을 남기고 요리하던 엄마에게 날아들 듯이 말이다.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로운 삶보다 교과서적인 행동을 지향하는 까닭일까. 우리는 점차 이런 직접적인 충동과 거거서 만끽했던 즐거움을 잃어간다. 그렇지만 이 '본능'적인 짜릿함은 다른 방식으로 매 순간 우리 삶을 흔들고 이끈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표정, 그들이 내뿜는 단어들, 새로 수서한 책의 표지를 넘길 때의 두근거림, 오랜만에 찾아온 사람들과의 만남, 문득 눈에 들어온 과란 하늘과 순식간에 목줄이 풀려 경중경중 뛰어 달려온 윗집 강아지... 모두가 나의 일상에 크고 작은 파동을 일으키며 발자국을 남겨왔던 듯하다.

어느 순간 다시 떠올려 상상하게 하고, 일상의 언어를 만들어 주는 그림책 《어느 조용한 일요일》.

이선미 작가는 짧은 페이지에 글 없는 단순한 그림임에도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을 이 책에서 마음껏 발산한다. 《어느 조용한 일요일》이 내 마음에 핑크 무늬를 내고 다른 무늬들을 상상하게 했듯이 나 또한, 그리고 우리 도서관 또한 관계 맺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진한 핑크색 무늬를 남기게 되길, 아니 이미 그려하길 꿈꿔 본다.

- 박소현(평화물품은집 평화도서관)



## 애들아, 세상은 거대한 예술 창고란다

신현림 지음 / 토토북  
2018년 1월

**이** 책은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딸에게 작가가 예술가에게 꼭 필요한 감정과 창의력을 키워주려고 함께 세계 곳곳으로 여행을 하면서 영감을 얻어서 쓴 책이다. 캄보디아, 터키, 프랑스, 덴마크, 영국 이 다섯 나라에 숨어있는 예술들(동화, 화가, 그림, 자연환경 등)이 소개되어 있다. 독자에게 이야기해주는 듯 한 말투로 쓰여 있어서 책을 읽는 내내 나도 모르게 몰입해서 읽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역시 예술과 관련되어있는 꿈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굉장히 도움도 되고 재미도 있고 뭔가 새로운 책이라는 느낌을 받아서일 것이다.

특히 자신이 가보았던 곳을 바탕으로 예술과 연관지어 이야기해주어서 마음에 들었다. 중간 중간 앞에 나왔던 내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상상력을 높여줄 수 있는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다. 직접 방문했던 나라를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생생하다는 장점이 있어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좀 아쉬웠던 점은 책에 나오는 장소가 5개국에 한정되어있다는 점이다. 장소가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 책과 같은 스타일의 책이 다른 주제로도 나오면 재미있을 것 같다. 예술 말고 건축이라던가, 다양한 여러 주제들 말이다. 아니면 다른 나라로도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애들아 세상을 거대한 예술 창고란다 2'로 나와도 좋을 것 같다.

이 책의 제목이 세상은 거대한 예술창고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 그냥 나무를 보더라도 예술가는 다르게 보고 그냥 아이들의 낙서를 보더라도 예술가는 다르게 본다고 한다. 신기한 것이 책을 읽고 난 후 나도 평소엔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평범한 물건들이 상상력이 덧붙여져서 재미있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중에는 이 책에 나온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갔을 때도 신기한 유적이거나 유물을 봤을 때 나의 시선이 원래와 달라져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 왜냐고 이유를 물어보면 이 책 덕분에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상상력도 키워졌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 난 후 '예술가'라는 직업에도 매력도 느끼고 관심이 더 생겼다. 한참 진로를 생각할 나와 같은 나이에 아이들에게 한 가지 길을 더 열어준 책이다. 만약 예술가가 꿈인 친구가 근처에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다.

- 주다영(서울문명여자중학교 1학년)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부모

### 두근두근 1학년

손도영(서울 송화초등학교 학부모)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생

### 도서관은 내친구

한재훈(서울 신흥초등학교 6학년)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출판사

### 출판이 공익성을 추구하면서도 수익성이 이루어진다면

박정훈(철수와영희 대표)

3월 아이가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 전 유치원에서 학교 탐방을 하며, 학교에 대한 기대로 매일 매일 부푼 마음을 키워가고 있던 아이였다. 나를 아들은 입학 전 준비를 했다. 부모와 함께 책가방과 학용품을 준비하는 건 물론이고, <두근두근 1학년>(송언 글/서현)

그림 (사계절)의 책을 읽으며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짐과 친구 사귀기 연습을 했다. 부모로서 나는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며 내심 뿌듯해 하고 아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리라 생각했다. 아이와 손 붙잡고 입학식 가는 날까지는 적어도 그랬다. 그러나 나는 너무 태평하였던걸까? 아이는 4교시 시작 하는 첫 날,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는 얼굴이 어두웠다.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느냐고, 무슨 일 있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아이는 집에 가자고 할 뿐이었다. 왜 표정이 그런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이가 피하는 거 같아 기다려 보기로 했다. 저녁 식사 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들과 놀다 공에 구멍을 냈다. 평소에 있던 말든 상관없는 물건인데, 아이는 공이 망가졌다고 영영 울며 “오늘은 안 좋은 날이야. 나만 실수하고...”라며 말했다. 아이를 다독이며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학교에서 선 그리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잘못 가르쳐줘서 자기만 실수해서 너무 속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 시간 가까이 울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 엄마인 나도 무척 당황했다. 평소에 낮은 곳에서도 늘 밝게 놀던 아이였는데, 학교에서 긴장하여 자신의 실수에 속상해 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다. 그래도 너의 열심히 하려는 모습은 좋았다고, 하루하루 나아질 거라고 위로하면서도 아이의 학교생활이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주위 선배 학부모께 조언을 얻고, 도서관에 가서 1학년 아이들의 심리에 관한 책도 대출해왔다. 내가 대출한 책이 아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아이도 이런 엄마에게 힘을 얻길 바란다. 그리고 아이가 1학년이면 부모도 1학년이 된다 하는데, 이 학교 적응기를 통해 아이도 성장하고, 엄마인 나도 한 단계 성장하는 부모가 되길 희망한다. 두근~

나는 도서관에 가면 마음의 휴식과 지혜를 얻는다. 여러 책들을 읽다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 수업시간에 의식주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이라고 배웠지만, 책도 그만큼 중요하고 공기만큼 우리 삶 이곳저곳에 있으나, 알지 못하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에디슨도 초등학교를 중퇴했지만, 책을 읽고, 도전하고, 비록 여러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둠을 밝혀주는 전구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한편의 책 속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과 정보, 조상들의 가르침이 가득하다. 친구들은 책이 무엇이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 곳곳에는 책이 있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이다. 또, 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주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이라는 생각도 든다. 처음 이 글을 써보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써야할 지 고민이 되었다. 그런데, 도서관을 다닐 때의 느낌과 좋았던 점을 쓰면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처음 도서관을 갔을 때를 생각해 보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학교도서관에서 했던 과학책 읽기 수업이 계기였던 것 같다.

처음엔 엄마의 강요에 갔었다. 어렵고 힘들었던 수업이었지만, 그 곳에서 친구들, 형, 누나, 사서선생님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책임기가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어느 순간, 난 과학책 읽기 수업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책임기가 점점 재미있어졌다. 또, DLS 독서교육종합시스템으로 독후활동을 해보라고 하셨던 사서선생님 덕분에 독후활동도 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열리는 독서 골든벨도 책임기에 흥미가 생기게 했던 것 같다.

지금은 도서실에서 하는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여전히 난 시간이 생기면, 도서실에 가서 책을 읽으며 마음의 휴식을 하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책 속에서 찾아내고 꿈꾼다. 우연찮은 기회로도 좋고, 그냥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계기로 도서실과 책을 좋아하는 친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요즘 출판사를 창업하려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책이 좋아서 출판사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럴 때 나는 그분들께 책을 정말로 좋아하면 좋은 독자로 남으라고 말한다. 출판사를 운영하게 되면 좋아하는 책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펴낸 책을 팔기 위해 밤낮으로 치열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출판사는 책을 펴내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팔아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이다.

이를 어떤 출판사 대표는 “출판은 선비의 가슴과 장사꾼의 마인드의 매력적인 줄타기”라고 표현했다. 즉 지속 가능한 출판을 위해 공익성과 수익성의 긴장관계 속에 놓여있는 것이 출판사의 숙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솔직히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출판업에 뛰어들어 책 파는 것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좋은 책을 펴내면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현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출판의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성도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를 위해 최소 몇 가지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출판계의 도서 거래에 있어 어음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아직도 많은 작은 출판사들이 책 도매상으로부터 4개월 어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출판사에서 도매상이나 대형 서점, 온라인 서점에 책을 공급할 때 최저 공급률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한다. 그래서 대형 출판사와 작은 출판사의 공급률 편차가 줄어들어야 한다. 셋째 현재 공공도서관이 1000여 군데 정도 되는데, 두 배 이상 늘려 출판사들이 좋은 책을 펴내면 최소 초판은 판매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의 확충과 정규직화가 시급하다.

좋은 책을 펴냈기 때문에 안 팔리더라도 만족하는 현실이 아니라, 좋은 책을 펴내서 많은 독자들에게 널리 읽히는 사회가 된다면, 책이 좋아 출판사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창업을 권하게 될 것 같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교사

## 사서교사의 작은보람

전태옥(흑룡강성 상지시조선족중학교 사서교사)

사서교사로 배치 받은 지 어언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한국재단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의 후원으로 새롭게 꾸며진 학교도서관은 아늑한 방이기도 하다. 우리가 아는 도서관은 발자국소리를 기도 미안한 책을 읽는 학생들의 숨소리만 고르게 들리는 곳이다. 이런 도서관의 독서분위기를 떠올린다면 어리둥절해질 것이다. 우리 도서관에선 아이들이 누워서 책을 읽기도 하고 옆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책을 보기도 한다. 하지만 큰소리는 금물! 또 아이들은 책 한 권을 친구들과 함께 보면서 책의 내용에 대해 토론도 할 수 있다.

작년 여름 한국 학교도서관연수활동캠프에 참가했다. 도서관캠프에서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또 한국도서관의 고마운 분들께서 보내주는 책들로 나의 독서지도는 하루하루 더 풍성해졌다. 하지만 매일 업그레이드되는 독서과는 더러 곤혹스러운 일도 있었다.

초중 1학년의 김미봉 학생은 반급에서도 이름난 말쑥꾸러기였다. 독서시간에 책 읽기를 할라치면 앉아 껌을 질질씹고 씹거나 옆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몇 번이나 조치를 취해보아도 효과가 없었다. 매번 반복되는 골칫거리 봉이 학생을 어떻게 다뤄볼까하고 고민도 많이 해보았다.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라고 하니 기진맥진해 진 것 같았다. 그날도 옆

드려있는 봉이 한테로 다가갔다. 나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 하나를 골라잡아 봉이에게 건넸다. 간히 좋아하는 기색은 아니 었지만 그래도 쾌히 받아들였다. 이윽하여 그림책에 신나는 총쏘기 장면이 나오자 피씩 웃음기 어린 얼굴로 힐끔 나를 쳐다보았다.

나도 긍정적인 눈길을 주면서 웃었다. 그리고는 메모지에 《선생님은 봉이학생을 믿어요. 화이팅!》하고 살짝 책상모퉁이에 얹어놓았다. 그랬더니 요즘은 제법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잦아졌다. '아, 이제 됐구나, 포기하지 말아야지.' 알록달록한 사탕도 준비해 놓았다.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봉이에게 다가갈 슬쩍 호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그랬더니 다음 날은 시간이 되기도 전에 찾아왔다.

난 봉이에게 배워야 하는 도리와 독서의 참뜻에 대해 깨우쳐 주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듣고 있는 봉이가 웬지 성숙해 보였다. 조금은 안도의 숨이 흘러나왔다. 동심을 어루만져주는 마음이 비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 풍부한 경험, 나와 타인, 나아가 세상을 이해하는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하고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되었다.

고중 1학년 독서시간이었다. 세영이가 "사서선생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왔다. 세영이가 쓴 글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 한없이 기뻐하고 그 동안의 보람이 느껴졌다. 또한 아이들과의 소통에서 끌어주고 받쳐주는 지레대가 얼마나 큰 미래 지향적 영향을 남게 됨을 터득했고 아이들과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에 반짝이는 눈빛에서 튀기는 스틸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독서법에 대해 설명하고 글을 좀 더 정성껏 읽을 수 있도록 하며 좋은 문장의 표현법을 익

히기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갈고닦는 수양의 시간도 독서로 갖게 하였다. 글을 읽고 머리 속에 집어넣는 것을 지식 충전의 기본으로 성장시키고 《독서와 배움》, 《자기관리와 노력》, 《꿈과 희망》 등을 주제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목표와 열정을 부각시켜 주었다.

《좋은 글귀를 읽고 즐거움을 먼저 느껴보세요》, 《호기심을 가지고 시도해보세요》 등으로 책 읽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겐 짧은 메모를 적어 책상 위에 살포시 올려도 놓았다. 메모훈련은 나의 기본수단이 된 건가? 킥킥 혼자 웃어도 보았다. 감사 한 것은 그 어려운 첫걸음을 떼기 힘들어 하던 아이들도 점차 책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었고 책과 걸음을 함께 할 누군가가 있다는 감동을 느끼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독서는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쉽게 무시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희망과 사랑을 주어야 한다. 독서 풍으로 아이들과 동반 성장하고 맛풍, 멋풍 보다도 새로운 독서풍으로 주위를 꾸려나가야 한다. 아이들에게 더 넓고 깊은 것을 멀리 볼 줄 아는 시야를 키워 주련다. 매일 성장하는 내 아이들의 그릇을 점검하고 더 크게 넓게 만들어 보련다.

새로운 도전과 사랑의 에너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양분을 수혈 하련다. 우리 모두가 도서관을 사랑한다는 공통점 하나로 내 가정을 꾸리듯 작은 도서관을 채우고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도서관의 이용자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열어간다면 더 빛나고 포근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



# 제11회 블루픽션상 수상작

# 지구아이

최현주 소설집 | 248쪽 | 12,000원

지구라는 무대 위 각자의 두려움과 맞서는 아이들에 관한 소설집  
이 작가가 한 세대의 감수성으로 어떤 작품세계를 만들어 나갈지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심사위원: 김진경(시인, 동화작가), 김경연(청소년문학평론가), 이옥수(청소년소설가)

비롱소  
021515-2000  
www.bir.co.kr

## 학도넷 소식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 학도넷 행사

- 2017년 12월 12일 학도넷 후원의 밤
- 2017년 12월 15일 학도넷 소식지 겨울호 발행(통권 44호)
- 2018년 1월 16일~18일 학도넷 겨울사서연수 <책세상의 지도를 담다>

### 신입회원 (2017년 12월~2018년 2월)

정회원 : 이규선 이영선 이소연 이진옥 이규선 안미정 김은하 최진영  
 준회원 : 고인정 이재경  
 웹회원 : 김신애 신지연 임호

### 회비 및 후원내역 (2017년 12월~2018년 2월)

#### 정회원 회비

·매월 5천원 : 강복숙 강정미 곽정은 구미숙 권도경 권시애 길미숙 길영희 김경숙(보령) 김누리 김대경 김동현 김리라 김선영 김소원 김심환 김영선 김은영 김은하 김정숙 김정윤 김정혜 김하나 남규조 마민희 문수지 문원림 박미영 박은하 박준섭 백경숙 백연주 서정원 선보배 성주영 성미경 송경영 송숙영 송혜영 신은미 신정임 신정화 신형란 안경애 안정원 유영숙 유정원 윤남미 윤소영 이금화 이규선 이미순 이선화 이영선 이우정 이은혜 이주영 이진옥 이 현 이현애 이혜진 임경순 정수연 정영희 정명하 조영순 주상태 차진미 채재현 한은미 허지은

#### ·매월 1만원

·매월 1만원 : 강애라 강지영 권향미 김경숙 김은영 김순홍 김승주 김신희 김옥위 김중성 김진희 김진희(관악) 김효숙 라순희 류주형 문예원글로피아 박 샘 박영옥 박정해 변영이 백화현 송추향 안미정 오현애 오희애 유은실 이경자 이규향 이기영 이덕주 이문숙 이미경 이소연 이영주 이찬미 정수현 정영희 정지영 정진수 조길량 조선희 조은영 조의래 최진영 한명숙 허경림 황봉희

#### ·매월 2만원

·매월 2만원 : 김순정

#### ·매월 3만원

·매월 3만원 : 도서출판 북극곰,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연회비

·연회비 : 김경숙(보령10만)

### 준회원 회비

·매월 : 김미령(3천) 김민형(2천) 김승요(2천) 김승현(2천) 박영혜(3천) 박인자(3천) 박정미(3천) 박중숙(3천) 손은상(2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송권형(1천) 신수인(3천) 염효경(3천) 이영희(3천) 이재경(3천) 이재희(2천) 장버리(3천) 장한솔(2천) 조성우(3천) 최선옥(3천) 최유미(3천) 최창익(3천) 홍선희(3천)

#### ·정기후원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

#### ·새책후원

·새책후원 : 코스모스스쿨5(안재희 저자증정 50권)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걸 페미니즘(교육공동체 벗)/ 오페라의 유령(구름서재)/ 반짝반짝 별을 청소해,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고양이랑 물고기가 만나 고양이 물고기(그레이트북스)/ 지식과 교양, 소록도의 눈썹달(글라이더)/ 와글와글 직업대탐험(길벗스쿨)/ 표현해야 사랑이다 사람이 좋아지는 관계, 꿈을 이루는 목표, 생각이 달라지는 긍정, 인생을 바꾸는 습관, 결심을 지키는 실천(말리는책)/ 꽃밭, 엄?, 최고가 되고 싶어요, 민들레 꽃피는 민들레집(나한기획)/ 마보고계시조 희망이 담긴 작은별, 우리엄마 강금순(도토리숲)/ 천하대장군이 된 꼬마장승(두레아이들)/ 소능력자들(마술피리)/ 보고 듣고 말하는 호락호락 한국사 1, 2(웅치)/ 봄이다 달려! 나야 나! 우리 가족 만세! 야호 소풍 가져! 우리 같이 놀자!(미디어창비)/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 중1 시, 수필, 소설(창비)/ 동동이와 원더마우스2, 행복한 가방, 늑대가 나타났다, 아기 새는 뭐 해? 꿈틀이랑 사과랑, 색을 상상해 볼래? 찌저적, 평(북극곰)/ 지구아이(비룡소)/ 다섯 손가락 수호대(살림어린이)/ 법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생각과 느낌)/ 손으로 보는

아이 카밀(소원나무)/ 10대에 패션계에서 일하고 싶은 나, 어떻게 할까?(오유아이)/ 디그요정, 창배야, 우리가 봄이다, 아이는 혼자 올라갔다(양철북)/ 노란 리본(우리교육)/ 누가 내 케이크에 소금 뿌렸어!(중앙치매센터)/ 무섭다고 숨지마!, 가짜나무에 가까이 가지마!(책속물고기)/ 나를 표현하는 열두 가지 감정, 동생이 생긴 너에게, 생각하는 올림픽 교과서, 우산을 쓰지 않는 시란씨(천개의 바람)/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가 뭇쳤다(초록개구리)/ 애들아, 세상은 거대한 예술 창고란다(토토북)/ 뽀스왕과 사악한 황제(파랑새)/ 팍스(북21)/ 미래를 위한 따뜻한 실천, 업사이클링, 어린이를 위한 디지털 과학 용어 사전, 폭력없는 교실은 어디 있나요?(팜파스)/ 소크라테스는 왜 탈옥하지 않았을까?(평사리)/ 작은도서관을 들여다보다, 문화, 작은도서관을 건드리다, 작은도서관운동의 역사찾기, 마흔아홉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 소식지 보내주신 곳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맨발동무)/ 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 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 고래가숨쉬는도서관 겨울호(고래가숨쉬는도서관)/ 개똥이네 놀이터(보리)/ 어린이문화연대/ 서울교육 겨울호(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어린이도서관소식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간개똥이네놀이터/ 동화읽는어른(사)어린이도서연구회/ 계간 우리교육(불호)

### 겨울연수에 책 보내주신 곳

지구를 위협하는 1도의 비밀 외 40권(초록개구리), 개똥이네 놀이터, 개똥이네 집 과월호 70권(보리), 2017년 겨울호 어린이에게 권하는 새책 소식지 50권(고래가숨쉬는도서관), 책의 아이 포스터, 별과 나 엽서(비룡소)

**\*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계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 2017 학도넷 <후원의 밤> 했습니다.

·연제 :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오후 5~9시  
 ·어디서 :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강당 '폼다' (시청역) 학교현장에서 출판현장에서 문화현장에서 한해동안 애쓰신 많은 분들이 모여 희망찬 새해를 위해 신명나게 한판 놀았습니다.

### <후원의 밤, 후원금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만 : 강정미, 권기정, 김명선, 김보현, 김상미, 김선영, 김수현, 김숙자, 김연우, 김옥위, 김은영, 김은영, 김진화, 김청자, 나순희, 박은숙, 박정미, 박정해, 박진숙, 백경숙, 봄봄출판사, 손도영, 송정옥, 신정임, 신향경, 안덕희, 오선경, 이기나, 이명규, 이명자, 이현숙, 임정은, 정은희, 초록개구리
- 3만 : 마민희, 이영주
- 4만 : 성산동개똥이네책방, 안희정, 이경자, 이선민, 이선임
- 5만 : 길미숙, 김미령, 이숙현(구미금오유치원), 나순희, 홍석근(평사리), 문원림, 김지순, 손종도(우리민족서로돕기), 이덕주, 무명씨, 최진영(여주), 황진희, 평화를 품은집, 꿈교출판사
- 8만 : 우리자리공부방
- 10만 : 김경숙, 김진희(관악), 류주형, 박영옥, 변영이, 이주영, 임행녀, 정진수, (주)우리교육, 백화현, 홍상영(우리민족서로돕기), 서해문집, 학교도서관저널(어린이문학분과), 문학동네, 청소년출판협의회, 박상률, 양철북출판사, 세계절출판사, 보리출판사, 이용훈(도서관협회)
- 20만 : 김혜원, 김효숙, 비룡소, 북극곰(이루리), 학교도서관당교사(서울모임), 학교도서관저널
- 50만 : (주)창비,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학도협)

### <후원의밤 도서후원>

나의 이스마엘(평사리), 아빠의 아이공부(글라이더), 개똥이네 놀이터(보리), 세계절 책달력

### 2017 학도넷 겨울사서연수 했습니다.

<책세상의 지도를 담다>  
 ·강사 : 강창래 선생님  
 <책의 정신 : 세상을 바꾼 책에 대한 소문과 진실> 저자 (전)느티나무도서관재단의 장서개발위원장  
 ·때 : 2018년 1월 16일(화) ~ 18일(목) 10시~17시  
 ·곳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 <2018 사례공모>도서관이용자 이야기대회

도서관 이용자시대!!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을 공모합니다.

도서관의 진정한 주인은 이용자입니다. 도서관 활성화는 시민들의 행복한 도서관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간 어린이와 어른 모두 도서관문화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을 특별히 관심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라 여기기도 했구요. 행복한 이용경험이 적다 보니 도서관에 대한 요구를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우리 둘레에 있는 도서관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도서관 주인노릇을 올바르게 할 때 도서관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도서관 문화를 온 국민이 세대를 초월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에 처음 간 때는 언제였어요? 아직 즐거가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도서관 회원증 만들러 가까운 도서관 한번 둘러보세요.

### <사례공모>

1. 생애 처음으로 만난 도서관이야기
2. 도서관에서 행복했던 이야기
3. 도서관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인연이야기
4. 도서관에서 생긴 일
5. 나의 어릴 적 독서환경 이야기
6. 내가 꿈꾸는(바라는) 도서관
7. 도서관에서 행복해지는 비법
8. 이 밖에도 도서관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후원 : 창비

·대상 : 누구나(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마을문고 이용자, 잠재 이용자)

·참여방법 : 소중한 경험을 편한 입말로 써서 보내주세요. (A4용지(글자크기 10) 1매 이상)

·접수 : 2018년 5월 9일까지 (hakdonet@hanmail.net)

·발표 : 2018년 5월 14일 학도넷 홈페이지

·시상

1. 으뜸상 : 5명 상장액자와 책읽어주는 의사
  2. 버금상 : 10명 상장액자와 책 20권
  3. 나눔상 : 20명 상장액자와 책 10권
- 공모발표 : 5월 14일(월) 홈페이지

### 학도넷 창립 14주년기념 심포지움 및 정기 총회합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 5월 26일(토) 오후 1시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